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5.11



저/역/사/표/특/약/△/연/접/외

1995년 11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35호 발행인 최현숙

어린이 하리도우

11.20



<표지사진>

아이들의 모습과 표정은 세계 공통인 것 같다.
일본 이쿠노 민족문화제에서 자기들 순서를 기다리며 바닥에 휴장난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일하며 생각하며 / 3

지택연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최현숙

기획 / 5

어린이집 식단은 어떻게 짜야할까

오경민

새날을 여는 사람들 / 8

감사패라뇨? 정말 섭섭해요

주혜민

견습소식 / 13

만5세아 조기입학, 어디로 가고 있나

편집부

특집 / 20

독일탐방기(2)

박주현

저상공연 / 2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준비상황

김혜선

기획연재 / 25

물설고 낯설은 타향에서

정희연

좋은 그림책 소개 / 32

달님 안녕, 새벽

그림책 읽는 교사모임

우리네

아이들

95.11월호

<통권 35호>

현장연구 / 35

고영미 "H.A. 레이의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를 읽고 나서

건강하게 삽시다 / 37

김철환

비만증 - 그 대책은?

작은기획 / 39

김태일

쉽게 배우는 사진, 비디오 교실(3)

서사말뚱이 / 41

편집부

어른 세계의 어두운 축소판

글막당 / 43

[오래여기5산악연어집]편

택역소별곡

문유미, 박정희

우리들의 목소리

현장연구 / 47

이애용

전라도 부안을 다녀와서

항기있는 자력 / 50

박덕인

제주 겨루기

소식과 소식 / 54

보육계풍망 / 57

편집부에서 / 59

기획

어린이집 식단은 어떻게 짜야할까

오경민 / 영양사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어린이집 식단을 분석해보고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구성할 때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많은 어린이집의 식단을 수거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8군데 어린이집의 영아, 유아별 점심과 간식 식단표를 모아서 오경민씨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조리방법이나 재료에 따라 칼로리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식단표가 재료나 칼로리의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 먹은 만큼의 충분한 분석은 될 수 없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



유아기는 신체와 정신의 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체위와 체격, 건강한 체질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형성되는 기초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식사를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영양적으로 만족하는 점심 급식과 간식의 급식을 통하여 어린이의 신체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급하는 한편 식생활 지도를 실천적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인 영양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측면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가정에서의 식사와 다른 식단을 통해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1일 영양 요구량의 1/3~1/2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양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교육적인 환경에서 실생활과 연계된 지도를 하여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편식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의 교정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 식습관의 형성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다. 그리고 급식할 때 식생활의 예법과 생활규칙을 체험하여 바른 식생활 예절을 알게 되며 식사를 나눔으로써 친밀한 시간을 통하여 따뜻한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실천을 통한 도덕교육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식단 작성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첫째 식품의 배합을 다양하게 하여 개개인의 영양필요량을 만족시킨다.

식사를 구성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선택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량에 대한 충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둘째 알습과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된 식단을 구성한다.

셋째 같은 음식을 계속 주면 어른보다 쉽게 싫증을 느끼므로 열흘이나 보통 단위의 주기식단을 구성하는 등 매일 다른 식단을 주도록 한다.

넷째 조리방법면에서 소화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며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 사용은 삼가한다.

다섯째 식단을 구성하는 음식은 색깔, 질감, 형태, 맛에 있어서 적당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여섯째 음식을 여러번 나누어 필요한 영양소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을 조절하고 식사의 간격을 되도록 규칙적으로 한다. 필요한 영양소량이 많은데 비하여 소화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도 세끼의 식사를 충실히 하면서 정규식사 이외 간식을 제공한다.

위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쓰이고 있는 식단을 살펴보자.

1~3세 아동의 경우에는 1일 1,200kcal의 열량과 3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고, 4~6세 아동의 경우에는 1일 1,500kcal의 열량과 40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이것에 근거하여 점심식단에서는 열량 및 단백질 권장량의 1/3정도를 제공해주면 된다. 즉 점심식사에서 400~600kcal의 열량과 10~20g의 단백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간식은 열량이 100~150kcal이며 5g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 2회 정도 주도록 한다.

필요영양소의 섭취는 1군에서 5군의 식품까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해준다. 한끼 식사에서 <계란말이, 쥐포조림> <꽃게찌개, 고기볶음> 또는 <도라지생채, 호박볶음> <미역초무침, 가지나물>의 형태로 1군식품만을 섭취하는 날이 있거나 3군식품만을 섭취하는 날이 있는데 1군식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을 적절히 섞어가며 정하고 아울러 조리방법도 구이, 조림, 볶음, 튀김 등 다양하게 변화시킨 음식과, 3군식품을 이용한 야채반찬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숙채, 생채, 샐러드 등으로 음식을 한가지씩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2군영양소 경우에는 그 식품이 제한적이어서 우유를 먹지 않는 날에는 칼슘은 가장 많이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이다. 국을 먹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국을 끓여 먹이고 국물에 멸치 국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5군 영양소인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되지만 적당량의 이

용은, 먹을 수 있는 양은 적은데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고열량 식품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김치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맵지 않고 강하게 간을 하지 않은 김치를 매일 식단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식단구성에 있어서는 계속 된장국을 먹인다든지 버섯볶음을 며칠 반복적으로 배치한 경우도 있고 식단을 짜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어린이집에 따라 기름을 이용한 음식이 자주 등장한다든지 초무침을 자주 쓰거나 햄, 어묵을 자주 이용하는 등 한쪽으로 편중되어 식단을 구성하는데 제한된 음식을 이용하여 매일 다른 음식으로 구성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 열흘이면 열흘후에 일정한 음식을 이용하여 식단을 짜는 것도 이용해 볼 수 있다.

조리방법에 있어서도 하루에 튀김, 볶음 등을 반복하는 날들이 있는데 같은 조리방법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식품을 이용하더라도 조리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찜, 조림, 구이 등의 변화를 주도록 한다. 식품의 질감에 있어서도 시금치된장국에 시금치나물보다는 콩나물무침으로 질감의 대비가 있는 식단구성을 하도록 한다. 또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운동량이 많은 날은 열량공급이 충분하도록 준비하며 일손이 부족한 날은 일품음식으로 준비하여 조리 및 배식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품음식의 적절한 이용도 권장해볼 만하다.

150kcal의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간식을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식품명	분량(g)	목 측 량	식품명	분량(g)	목 측 량
바나나	60	보통크기 1/2개	고구마	40	중간크기 1/5개
사과	110	중간크기 1/2개	감자	65	중간크기 1/2개
귤	120	중간크기 1/2개	비스킷	10	작은 것 3장, 큰 것 1장
딸기	130	보통크기 7알	웨하스	10	3개
감	80	중간크기 1/2개	새우깡	10	20개
토마토	250	중간크기 1개	감자칩	10	10장
참외	120	중간크기 1/2개	초콜릿	10	약 1/3개
과즙음료	80	약 1/2컵	팥빵	15	1/4개
치즈	15	3/4장	소보로빵	15	1/4개
요구르트	65	1병	카스테라	12	5×5×1cm크기 1쪽
요플레	50	1/2통	핫도그	12	1/5개

* 50kcal 열량을 가진 간식에 우유나 두유, 보리차 등의 음료수를 곁들이면 150kcal의 열량을 공급하는 간식이 된다.

○○○○ . .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장미경 씨 덕을 다녀와서 . . . ○○○○

감사패라뇨? 정말 섭섭해요

주혜민 / 편집부

이번호에 [우리네 아이들]이 만나본 인물은 현재 본 회 정책연구부장으로 계시는 장미경 씨입니다.

편집부에서는 11월 26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있을 지탁연 10주년 축하잔치에서 감사패를 받는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을 만나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탁연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이며, 애정을 장미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사람을 만날 때의 설렘은 잊혀지고 원고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늘상 괴로웠다. 그런 저런 부담 속에서도 이번만은 훌쩍 여행을 떠나는 기분과 함께 오래 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떠났던 춘천이라는 도시에 막연한 기대로 기차에 몸을 실었다.

지난 10월 20일 우리는 청량리역에서 11시 30분 차를 탔다.

2시간 남짓한 한가로운 기차여행(?)

높은 가을하늘이 서울과는 달랐다.

역을 막 빠져 나오니 장미경씨가 마중나와 있었다. 장미경씨의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한 표정이 이내 가졌던 여유와 한가로움을 싹 가시게 했다. 다소 긴장을 주는 인상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는 장미경 씨의 안내로 소양강댐 입구로 가서 춘천의 명물 막국수를 먹었다.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식당이 주는 정겨움과 복적대는 손님들이 벌써 입맛을 돋구었다.

춘천에서 제일 시원하다는 세월교 - 춘천시의 보통 사람들은 냉장고 다리라고 부른다 - 를 지나 옥광산을 돌아 장미경 씨의 집으로 갔다. 길가에 흐드러지게 서있는 억새들이 가을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장미경 씨.

“어때요? 춘천 괜찮은 도시지요? 처음에 춘천에 올 때는 당분간 있을 생각이었는데 살다보니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집값도 싸고 문화시설도 곳곳에 있고……. 참 편안한 도시지요.”

이미 반해버린 상태였다. 애초부터 일하러 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서울 춘여자들을 위한 장미경 씨의 세심한 배려로 이미 마음이 들뜬 상태가 되어버렸다.

장미경 씨의 지탁연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탁연의 역사 속에 늘 그림자처럼 있었다는 게 맞을 듯 하다.

“세살된 딸아기와 돌된 아들녀석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던 중 창작과 비평사에서 『여성』誌를 창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던거죠. 탁아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르포 기사를 쓰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죠. 저 또한 두 아이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때라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했어요. 애들을 데리고, 집안은 엉망인데 그 일에 빠져들게 되었죠.”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다. 그렇게 맺은 첫 관계가 10년의 세월을 만들어 놓으니 말이다. 우리는 어느덧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 라이프 스토리를 하듯 수다를 떨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미경 씨의 어려웠던 당시의 이야기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작은 단칸방에 모여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도 즐거웠던 - 그저 사람이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 일정과 애정으로 뭉쳤기에 각별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들의 이야기로 말이다.

“정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적이었어요. 달동네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선생님들의 헌신은 저를 뜨겁게 만들었죠. 일과 보람을 함께 느끼게 했죠. …… 근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무한 상태였지요. 그러다보니 부담스러웠어요. 어린이집 현장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지 막막하기도 하고 혹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현장 선생님들의 눈이 있

는데 헛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탁아와 관련된 거로는 최초의 글을 쓰게 되었나봐요.”

탁아 이론에 있어선 교과서처럼 되다 싶이한 장미경 씨의 글 “탁아소가 필요하다”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만 갔다.

지난 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요즘의 장미경 씨 생각을 듣고 싶어졌다.

우선은 이번 지탁연 10주년 행사때 감사패를 받게 된 기분부터 여쭙보았다. 남다른 감회가 있으리라는 예측을 갖고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섭섭해요.”

“???”

“상이라는 게 자기 식구 아닌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여직 저는 한 식구라고 생각해왔는데 감사패를 준다니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영 기분이 착잡하고 남의 식구 같은 묘한 기분이에요. 그냥 해야 할 일 한 것 뿐인데.”

당황스러웠다. 그런 답을 한지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뭔가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해서 상처를 안겨준 것 같은 마음에 어찌할 못하고 있었다. 얼른 말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꼭 10년이란 세월을 지탁연과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망을 갖고 있을 듯 했다. 예상문제이지만 답이 어렵다며 장미경 씨는 말문을 열었다.

“솔직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지탁연만의 문제는 아니



↑ 마침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학원에 가려는 아들과 함께 모처럼 포즈를 취했다.

라고 봐요. 시대의 변화와 운동 전반에서 오는 증후군이라고나 할까요. 함께 가는 성격이기에 힘든 시기이지요. 많은 부분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열악한 초창기 시절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열정 하나만으로 헤쳐나오고 답을 찾아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 그랬다고 봐요. 그래도 지금은 그 전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도 있지요. 새롭게 다지고, 방향을 잡아가는 노력의 시기로 삼고 충실하게 책임성을 다해 간다면 안개에 쌓인 듯한 우리의 전망도 보이지 않을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최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장미경 씨는 처절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과 사무국간의 밀접한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걸려진 토론의 과정 - 이러한 생생한 노력이 첫 발임을 강조

하였다. 그렇다. 우리가 남들과 다른 것은 거창한 이론이나 번듯한 모습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다. 끊임없이 토해내는 열정적인 토론의 과정 -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온 개개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었던가. 그러한 힘이 우리 발전의 원동력일 것이다. 통로가 막히는 막연한 기분에서 헤어날 듯 했다.

벌써 시계는 5시를 가르키고 있었다.

술술 마무리를 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장미경 씨의 해외여행담을 듣고 있지 않나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을 늦추고 싶어졌다. 찝찝한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꼭 들어가 있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었다. 순간 그런 생각을 했다. 수채화 같은 그 이야기들을 작은 지면을 통해 지탁연 식구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그럴 기회가 마련되도록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까지 굳히게 했다. 탁아소가 필요하다는, 다소 구호적이고 교과서적인 글에서 이젠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가난한 아이들의 깊은 눈망울이 어른거리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나의 욕심일까? 어쨌든 나의 사고는 단순히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 한토막을 소개해볼까 했지만 장미경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미뤄본다.

지탁연에 갖는 장미경씨의 지속적인 애정도 애정이지만 부군이신 이흥진 선생님(『우리내 아이들』 중 [건강하게 삼시다] 필진이심)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듯 했다. 보이지 않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흥진 선생님의 애정이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맞아요. 제겐 더없이 좋은 친구예요. 소리없이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소아과 의사라 그런지 관심이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소박하게는 돈을 벌면 마누라에게 어린이집을 차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지요.”

장미경 씨는 결혼을 어떤 믿음에 대한 일치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 속에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굳게 살아올 수 있었으리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젊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했던 시절이었어요.”

붕지쌀을 사서 먹고, 고물 자전거 두대를 타고 그 천지를 돌아다녔던 시절.

그때의 그 가난은 늘 소박하게 삶을 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소박해지는 것.

작으나마 남에게 보람이 되는 일을 하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날이 어두워졌다.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도 춘천에 왔으면 닭갈비는 먹고 가야죠. 안 그래요?”

우린 춘천에서도 유명하다는 닭갈비집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었다.

장미경 씨는 내년 2월부터 1년동안 미국에 가 있게 되었다.

부군따라 가게 되는 거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의 보육상황과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시간으로 삼을 계획이란다. 지탁연의 정책연구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이 든든하게 들려왔다.

.....

그렇게 춘천의 밤은 깊어갔다. 우린 서둘러 은하수거리(서울의 명동쯤으로 할 수 있는데 거리의 가로수에 온통 작은 전구를 매달아 놓은 거리로, 이 동네일대가 춘천의 8학군 이란다)를 빠져나왔다. 결국엔 기차시간을 놓쳐 막차를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아주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잔잔한 여운과 피곤을 안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서있던 장미경 씨의 배웅을 받으며.....

밤열차는 그렇게 달렸다.

나른한 몸을 싣고 의자 깊숙히 몸을 맡기고 그러나.....

장미경 씨가 해외여행담 중에서 이야기해주었던 이집트 소년 - 나일강 독을 따라 댕 발로 달리던, 가난한 그 아이의 영롱한 눈빛이 이내 잠을 못이루게 했다.

● 현상공모!!!

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책을 출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과 이제 막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린이집 생활을 궁금히 여기시는 주변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흥미로운 책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린이집의 생활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바로 그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꼭 생각해보시고 기막히고 짙 짙한 이름들 많이 보내주세요.

- 「(가제) 탁아소별곡」 준비팀 -

긴급소식

만5세 조기입학, 어디로 가고 있나

편집부 위임

만5세아 조기입학에 대한 교육부와 관련단체들간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며칠전 만5세아 조기입학 허용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 편집부에서는 지난 10월 18일 교육부의 조기입학 허용 이후의 교육부와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 반대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의 활동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 반대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 10월 활동과 경과 보고

만5세아 조기입학 허용안과 관련하여 각계의 우려와 반대 입장이 높았던 가운데 연대회의는 10월 12일 "5세아 취학 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주장하며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면서 이후 5세아 취학 반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주장을 널리 알리고, 언론 홍보활동, 서명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10월 18일 '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확정안'을 마련해 서울, 5대 광역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40명 이내에서 아동수가 남아있을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선별 과정은 조기교육 과열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출생이 이른 순으로 입학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연대회의는 10월 19일 교육부의 만5세아 연령순 국민학교 입학 허용방침에 대한 성명발표의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만5세아 생년월일순 입학 허용은 교육부 스스로가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의 본래 취지라고 주장한 '특수 영재아의 조기교육'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저 국민학교의 빈 자리 채우기에 지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는 다시 한번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10월 20일 연대회의 산하 4개 단체에 교육부 교재위와의 간담회 초청 공문이 왔다. 이에 연대회의 소속단체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임재택 교수), 학부모 연대(전봉자 교수), 전국교직원노조(송대현선생), 유아교육을 생각하는 전국유아교사모임(김영연)이 참가하였고, 연대회의 소속단체외에도 유아교육학회(이기숙교수),유치원총연합회 회장, 기독교 유아교육협회장,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 등의 단체장과 교육부 장학과 연구사 4인, 교육개혁위원(채충호)등이 참여하였다.

이날의 간담회내용은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일방적 설명과 해명이 있을 후,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자 교육부는 조기 취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되도록이면 취학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연대회의 성원들은 조기입학의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방침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교육부와 연대회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마쳤다. 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연대회의 서명작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연대회의는 계속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만5세 조기입학에 대한 반대 여론에 밀려 민자당은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여론수렴을 충분히 한 뒤 이를 재검토기로 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민자당 손학규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만5세 아동취학 허용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별첨1. 교육부 홍보 자료.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어떻게 하나』 1995. 10 교육부

지난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에 따라 '96학년도부터 학부모가 원하고, 해당 국민학교의 수용 능력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 생년월일순으로 만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화된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매년 2월말일을 기준으로 만6세로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3월 2일이 나 3월 3일생의 아동도 만6세에 하루이틀이 모자라 일년을 기다려 입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의 만5세 아에 대한 국민학교 입학 허용'입니다. 이는 국민학교 입학연령을 전체적으로 5세로 낮추자는 것은 아니고, 경직된 제도를 다소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입학의 허용 조건과 절차는 이렇습니다

만 5세아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5세 아동 부모님의 입학 희망이 있어야 하고,
그 아동이 입학할 국민학교의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의 두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생년월일순으로 입학이 허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등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기타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지역 및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수의 인원만 입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5세 아동을 제한적으로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이에 따른 과외는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이 국민학교 입학 준비 기관화되리라는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을 위한 과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만5세 아동에 대한 국민학교 입은 만6세에 가까운 생년월일순으로 허용될 것이며, 한글을 얼마나 잘 읽고 쓰는가, 덧셈·뺄셈을 얼마나 잘 하는가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학력 평가나 검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을 위한 과외 등 별도의 공부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는 나이차가 많은 동급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좋아 공부는 좀 앞서거나 따라간다고 하여도,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동급생들에게 항상 놀려 지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학교는 교과만이 아니고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소양을 총체적으로 터득하는 인간생활의 기초 학습장소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무리한 조기 입학이 어릴 때부터 같은 집단 내에서 연령 차이로 인하여 자녀의 리더십, 진취력,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등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깊이 고려하시어 입학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5세아 국민학교 입학제도와 영재교육은 다릅니다

자녀를 빨리 교육시켜 사회에 일찍 내보내고 싶으면 '95년부터 시범 실시중인 속진제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속진제란 학업 성적이 특히 뛰어난 학생을 한 학년씩 일찍 진급시키는 제도로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한 번씩 모두 두 차례 조기 진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일찍 들어가 동기보다 다소 뒤진 학습과 학교 생활을 하며 겨우 따라가기 보다는 제 나이에 입학하여 친구들과 체력, 학습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받는 것이 어린이를 위해 최선이라는 것이 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들 다수의 견해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은 유아의 기본 생활교육을 강조하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며, 놀이 중심으로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은 이러한 교육 목적에 충실함은 물론,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학부모 교육, 상담 등으로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부모님들께서도 5세아 국민학교 입학 제도에 대해 이상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녀의 입학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교육개혁추진기획단 제공(02-735-4420)

별첨2. 「교육부의 만 5세아 연령순 국민학교 입학허용 방침에 대한 성명서」

교육부의 만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 방침을 반대한다

- 무엇을 위한 만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인가? -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40명 이하 학급에 생년월일순으로 5세아 입학허용"방침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알 수 없다. 당초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안은 "국민학교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수학능력이 있고,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 국민학교 조기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수학능력"여부에 관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국민학교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끊어서 입학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주최한 만5세아 조기입학에 관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은 유치원 교육"이라고 전제하면서 "5세아 가운데 국민학교에 입학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소수의 특수 영재아동에게 국민학교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장기적이고 치밀한 관찰과 검사 후에 1%보다 훨씬 적은 극소수의 영재아동을 조기입학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교육부 스스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 특수 영재아를 장기간의 관찰과 검사를 통해 선발할 방법이 없고, 학부모들의 과열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유아교육이 파행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또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만5세 영재아가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를 했다.

그리고 우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하여 유아교육 밖에 방치된 30만명의 만5세 유아들에게 유아교육을 받게 할 것과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 이후에 유치원에서 특수 영재아가 있다면 유치원 교사들의 장기적인 관찰과 검사를 거쳐서 이를 발견하여 조기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의 만5세아 생년월일순 입학허용은 교육부 스스로가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의 본래 취지라고 주장한 "특수 영재아의 조기교육"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저 국민학교의 "빈 의자 채우기"에 지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2월 28일생과 3월 3일생이 같이 입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내어놓았지만 어차피 교육부의 방침대로라고 하더라도 하루 차이로 국민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 만큼 교육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육적 이득은 전혀 없이 학부모들에게는 조기입학 여부에 관한 갈등과 고민을, 아동들에게는 조기입학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학교에는 2개 연령을 한 반에서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유치원에는 취원아동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번 조치는 수학능력이 고려되지 않는 만5세 아동을 국민학교에 조기입학시킴으로써 국민학교 교육을 혼란 속에 빠뜨릴 것이며, 국민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아동의 양산으로 유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틀림없다.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흔들어 버릴 것이고, 만5세 조기입학 후에 국민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4세 아동을 속셈학원 등의 사설학원으로 보내어 조기입학을 대비한 과외공부를 시키게 되어 유아때부터 입시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기형적 교육풍토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 이번 40명 학생수 이하 학급의 만5세아 입학 허용방침은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줄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민학교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대도시와 지방간의 학급당 인원수의 차이로 인해 국민학교 취학연령이 지방마다 다르게 결정됨으로써 국민교육에 막대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다.

교육부가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5세 아동이 국민학교 조기입학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시키면서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는 유아교육을 바로잡아, 모든 만5세 아동이 최소한 1년 동안은 유치원에서 무상 공교육을 받은 후에 국민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실시하고 있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것이다.

우리는 왜 교육부가 반대여론이 많고, 시급하지도 않은 만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교육부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만5세아 국민학교 조기입학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입시부담을 가중시키고, 초등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허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995년 10월 19일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 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공화와 초진 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연구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미래유아교육학회, 부산유아교육학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유아교육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사립유치원설립자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1995년 11월 12일 일요일

(중앙일보)

5세 취학 재검토

民自, 法개정 유보... 여론 더 듣기로

민자당은 11일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여론수렴을 충분히 한 뒤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 손학규(孫鶴圭)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만5세 아동취학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9일 교육당장회의를 열어 만5세 아동 취학을 허용토록 의견을 모았었다.

특집

독일탐방기(2)

박주현 / 변호사



↑ 뮌헨근교의 쉬터른베르크 호수에서

지난 달에는 너무 부러웠던 독일의 잔디공원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사실 그들의 푸르른 잔디공원과 아름다운 호수는 젖गत은 날씨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이 춥고 가을부터 봄까지 건조기인 나라는, 열심히 상록수를 심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1년에 늦봄부터 가을까지밖에 푸른 잎을 볼 수가 없고, 여름의 호수는 장마로 인해 흙탕물이기 일쑤이고, 봄의 호숫가는 물이 다 빠져서 누런 흙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독일은 가을부터 겨울, 봄에 이르기까지 온도는 그리 낮지 않으면서 계속 비가 흩뿌리는 날씨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1년의 반 이상을 음산하고 으스스하고 스산하고 뼈속으로 추위가 스며드는 지독한 날씨를 견뎌내야 하지만, 잔디로서는 겨울의 온도가 영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고 계속 비가 오니 1년내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강우량이 일정해서 호수

들은 1년내 맑은 물이 찰랑거린다. 계절의 변화가 이러해서 슈바빙 거리의 키 큰 가로수들이 가을에 낙엽을 다 떨구는 것을 보고 만추감상을 톡톡히 하였는데, 비오는 크리스마스에 계절을 착각한 새순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물론 겨울에 비가 온다고 해서 어디라도 아름다운 공원과 맑은 호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도심의 그 넓은 공원을 깨끗이 관리하고, 호수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들이는 부단한 노력을 우리도 기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날

그 넓은 공간을 깨끗이 관리하고 호식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들이는 부단한 노력을 우리도 기울인다면, 우리의 날씨에 맞는 호식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씨에 맞는 휴식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음산한 날씨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종일 저기압과 저혈압을 견디기 위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오랜동안 사색에 잠긴다. 아저씨들은 취미삼아 자전거를 뜯었다 맞추었다 하기도 하고, 할머니들은 하루종일 창문을 닫기도 한다.

이때에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한계점에 이르면 사람들은 차를 몰고 나가 시속 200킬로미터로 아우토반을 달리기도 하고, 12월 31일 밤에는 온 집에서 불꽃을 쏘아올리고 거리에 나와서 술병을 깨고 난리들이다.

독일에서 관념적인 철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이고 철두철미한가 하면, 미친 사람 히틀러가 나왔다는 모순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았다.

사실 이 음산한 날씨 때문에 게르만족의 대이동도 시작되었을 것이다. 고대의 게르만족에게 로마라는 나라는 날씨도 좋고 문화도 발달한 한없는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이탈리아 사람들이 독일어를 알아야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말이다.

음산한 날씨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햇볕만 나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모두 별거

벗고 누워서 조금이라도 더 비타민 D를 섭취하려고 야단들이다. 그런 그들을 보며 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에 다녀온 후로, 가련하다는 생각은 좀 바뀌었다.

스페인에 가니 햇볕나는 날이 300일이라는 등 해서 관광하기에는 참 좋았고, 꾸질꾸질 비내리는 곳에서 쟁쟁 햇볕나는 곳에 가니 처음엔 상쾌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들녘을 지나다보니 부족한 강우량으로 중부지방은 거의 사막에 가까웠고, 잡초도 없는 땃 땅에 오렌지나무와 올리브나무만 듬성듬성 심어져 있을 뿐,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대지엔 풀도 없이 햇볕만 쬔 내리쬘니 머리가 멍해지는게, 까뮈의 '이방인'에서 '태양이 눈부셔서 총을 쏘았다'는 말이 그럴싸해 보일 정도였다.

날씨가 그리하니 사람들은 차분하지 못하고 거리도 지저분해 보였으며, 준사막 지대이다 보니 밤과 낮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낮12시쯤 되니 추위가 풀리는 봄날 오후처럼 몸이 나른한게 일을 할 수가 없어 공식적인 낮잠시간이 4시간이나 되었다.

낮에 이렇게 한 잠 자고나니 다시 기운이 솟아서, 저녁이면 온 거리가 짙짙해지는 독일과는 달리, 저녁이 되자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온통 북적대는데, 낮기온에 맞추어 반팔 입고 나온 사람, 밤기온에 맞추어 밉크로트 입

독일에서 관념적인 철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이고
철두철미한가 하면, 미친 사람 히틀러가 나왔다는 모순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았다.

은 사람들이 뒤섞여 중구난방이었다.

이런 토양에서 투우와 플라멩고가 나왔고, 프랑코 우익독재와 스페인 혁명이 일어났으며, 도무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는 스페인 영화 '하몽하몽'의 가족들간의 비정상적인 사각 애적행각도 이러한 날씨에서 나온직한 줄거리 같았다.

한편에서는 그토록 애타게 그리는 햇볕이 한쪽에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독일에 도착하여 싱그러운 나무들과 풀들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이것이 음산한 날씨에 대한 댓가였구나, 공짜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일조량도 적당하고 겨울이 춥지 않아서, 고대문명의 발상지로 선택된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프랑스는 파리의 음울한 날씨와 남부의 화창한 날씨가 공존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이성과 낭만적 감성이 잘 조화된 문화민족이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은 썩 양호한 쪽이라고 생각되었다.

한겨울이 너무 추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질고, 강우량이 너무 여름에 집중되어서 농부들은 애타게 하고 1년에 반 이상을 푸른 잎을 보기 어렵다는 것 외에

햇볕이 모자라서 우울증에 걸리고 햇볕이 넘쳐서 미칠 정도가 아닌 것만으로도 좋은 기후조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교적 화창한 날씨덕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으로 기어나오고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남을 의식하고 간섭하고 과시적이며 철저하지 못한 반면 또 그때문에 비교적 낙관적이고 인정받고 저돌적인 데가 있는건가, 또 한편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잦은 홍수와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모질고 너그럽지 못한 반면 또 그때문에 억척스러운 데가 있는 건가 하는 다소 '기후 만능적인' 생각도 해보았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스모그와 인구밀도가 그 어떤 기후조건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인성을 지배하여 자신도 모르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지만. (다음호에 계속)

↓ 위타른베르그 호수에서 놀고 있는 필자의 아이들.



지상강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준비상황

김혜선 / (사)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인권국장

(사)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네 아이들]에서 한번 다루어보면 좋을 것 같아 부탁을 드렸더니 (사)한국여성의 전화에서 발행하는 영문 NEWS LETTER 9호에 실릴 예정인 이 글을 흔쾌히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아내구타 발생 빈도와 그 추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조사에 의하면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서울조사(1992년)에서는 이제까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45.8%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보건사회부의 조사(1993)에서는 61%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전화상담 건수 중에서도 구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아 31%(94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의 가장 주된

요인은 구타 발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내구타란 남편이 가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부간의 문제이므로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며,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오히려 폭력유발에 대한 비난을 받고 보호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폭력이 지속되게 된다.

이와같이 지속되는 남편의 폭력은 점차 포악해지고 교묘해져 범죄화 되어가며, 여성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한다. 또한 자녀에게는 폭력적 사회화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결국 폭력적 가정을 결과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폭력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구타남편을 살해한 김명희, 최현옥 사건과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아버지를 살해

한 전경진 사건 등은 아내구타의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내구타는 폭력관계에 속해 있는 당사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가해남편은 자신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소극적이며, 피해여성은 자녀문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이혼에 대한 사회적 비난 그리고 장기적인 남편폭력에 의한 무기력 등으로 인해 폭력관계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따라서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사실 불가피한 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개입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현 실정상 새로운 법의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형법 25장에서 상해와 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여기에는 비속,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구타당하는 여성이 남편을 고소하기 어렵고 경찰 또한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여기고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아내구타에 대한 합법적인 효력을 전혀 지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법 친족법 840조에 구타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구타에 대한 새로운 법적 조치는 아내구타를 범죄를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아내구타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구타의 초기 단계부터 가해남편의 치료와 격리, 피해

여성과 자녀의 보호라는 사회복지적 대처 방안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를 지녀 구타의 지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매우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법에는 가정폭력의 범주에 아내구타를 위시하여 노인학대, 아동학대 및 기타 가족간의 학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이어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현재 가정폭력 방지법의 시안을 마련해 놓고 이를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시켜 96년도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지부별로 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며, 특히 95년 11월 25일 - 12월 5일간 행해지는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 동안 여성폭력 추방주일을 선포하여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기획연재

물설고 낯설은 타향에서

-영국 하로도 Harlow에서-

정희연 / 본회 부회장

안녕하세요, 지략인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해주신 덕에 무사히 영국에 도착, 이곳 Harlow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갈 때까지 매일 제 글을 읽게될 여러분께 소식 전합니다.

첫달은 이곳에 대한 소개와 제 생활에 대한 글을 보내드리고 다음 호부터는 제가 방문해본 이 곳의 여러 시설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은 1년에 3학기가 있는데(이곳 사람들은 term이라고 부릅니다) 3학기 동안 매주 한 곳씩 시설을 방문하게 됩니다. 제한된 제 시각과 짧은 영어 때문에 제대로 전달해드릴 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1. 9월 2일 오후 여섯시, 드디어 London, Heathrow공항에 도착하다!!!

이 글을 읽는 사람중에 13시간동안 비행기 안에 갇혔던 경험있는 사람 손들어 볼 것.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아니고 '비행기에 갇혀서 오다'가 맞는 표현처럼 느껴질 정도로 김포에서 Heathrow까지 오는 과정은 괴로웠다. 나의 스폰서는 Burmah 'Castrol'社라고 영국에 본사를 둔 매우 큰 회사다. 그 덕에 비행기표는 정말 좋은 것으로 티켓팅되어 모두 점잖은 비즈니스맨들만 타는 칸에 타고 왔다. 약 30명 정도의 승객이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 지긋한 신사양반들이었다.

공항에서 친구(나의 아들)와 헤어질 때 그 가슴 아픔이란..... 그런 경험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볼 것.



↑ 필자가 다니는 Hertford regional College는 아주 조그만 학교다.

출국수속하러 들어가면서 창살 사이로 마지막 뽀뽀를 할 때 그 느낌, 약간 슬픈듯이 보이던 민구의 얼굴표정. 하지만 엄마와 헤어진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 약간 어리벙벙하던 그 표정.

비행기 안에서는 '소공녀'라는 영화를 보여줬는데 세상에 소공녀가 그렇게 슬픈 작품인지는 또 처음 알았다. 소공녀 세라가 아빠와 기숙사에서 헤어질 때 어찌나 울었던지 옆자리의 신사양반이 괜찮냐고 물을 정도였다. 자꾸 소공녀 세라의 얼굴이 친구얼굴이 되고 아빠 크루대위의 얼굴에 내 얼굴이 오버랩되는 것이었으니.....

어쨌든 주책맞게 1등칸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잠도 잘 안오고 책을 봐도 집중이 안되고 하여튼 길고 지루한 여행이었다.

중간에 내릴 수가 있나,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할 수 있나, 아무튼 6시간 넘는 비행기 여행은 정말 할게 못된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London에서 도착해서는 마중나온 분의 집에 가서 4박5일을 묵었다.

여기서 간단히 배경을 설명해보자면 영국의 Women's Council이라는 단체에서 아시아국가 중 좀 못사는 나라들의 여성을 한명씩 선발한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Castrol社 같이 도와주는 스폰서들이 하나씩 있다. 또 Women's Council 회원들로, 각 장학생들에게는 1~2명씩의 special friend가 있다. 이 special friend는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후견인 노릇을 해준다. Women's Council은 전직 영국대사부인들의 모임인데 주로 아시아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그동안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대열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다른 클래스메이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족신발이 비싸서 뽀 고무신을 모두 신다보니 아이들이 발에 상처를 많이 입는다는 Pakistan 친구의(Pakistan의 북쪽 끝 변경에서 온 - 이곳은 농업지역으로 자동차도 없고 극장도 없고 아무튼 있는게 하나도 없는 동네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 싶을 때가 있을 정도다.

London에서 4박5일동안은 그야말로 내 생애 최대의 시련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묵었던 집은 3층짜리 고급주택으로, 동네도 우리나라로 치면 압구정동쯤 되는 땅 값 비싼 동네다. 그런데 시차와 향수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밤마다 눈물로 지새고(시차때문에 밤에는 잠이 안왔다. 한국에서 난 꼭 아침마다 한번씩 큰 불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곤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1주일 가량 꼭 새벽 1~2시에 화장실을 갔다. 이곳 새벽 1~2시는 우리나라 아침이니 내 몸은 충실히 제 고국의 시간을 지킨 결과라고나 할까?) 아침이면 눈이 토끼눈처럼 빨개져서, 주인할머니가 잘 잤냐고 하면 그렇다고 대충 둘러대는 악순환이었다. 같이 묵던 파키스탄 친구와 하루는 London 시내 관광을 하러 갔는데(sight seeing bus라고 2층버스인데 위에 천장이 없는 관광용 버스가 있다) 도무지 향수병 때문에 하나도 눈에 들어오게 없었다. 버킹검 궁전, 웨스트 민스터 사원, 템즈강, 타워 브리지, 워털루 브리지, 빅 벤 등등 다 둘러보았는데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버스 뒷풍무늬에 붙어 있던 'Gold Star' 광고다. 그걸 보는 순간 주책맞게 왜 눈물이 나는지. 런던관광 하면서 버스에 앉아 온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게다. 겨우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 어느 길 모퉁이에 걸려있던 'Korean Airline' 광고판,



↑ 아주 작은 Local Museum에 Mitha(Indonesia)와 함께 갔었다. 이곳에는 이렇게 작은, 자기 고장을 소개하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다. 이 Lowerwood Museum은 지역 주민들의 모임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는데 주민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또 눈물 절름, 버킹검 궁전 앞에서 본 한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말 소리,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애써 눌러 참았다. 처음에는 얼굴 납작한 아시아 사람만 만나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봄비는 지하철 안에서 (영국의 지하철을 Tube라고 부르는데 정말 튜브 같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약 2/3정도 크기에 천정도 낮고 처음엔 답답해서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일본인 같은 사람만 봐도 가까이 가고 싶어 애를 태운다. 가까이 가서는?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 그저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있다는 묘한 안도감만 느낄 뿐.

정말 외국에 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더니만 웬 재벌기업 광고에 내가 우느냐 말이다. 이젠 도저히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고 감정의 움직임인데 달리 말로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학교에 세 컴퓨터가 들어왔다

는 얘기에 수업시간에 들어가보니 Samsung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달려 있는 걸 보는 순간(본체도 아니고 모니터만) 새로 뽑은 Hyun Dai(대부분 클라스메이트들은 우리나라 제품 하나씩은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는 '현다이 최고'를 항상 외친다)에서 만든 자동차를 보는 순간, 타고 있는 영국총각까지 사랑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4박5일동안 정말 괴로웠던 건 통하지 않는 말이었다.

주인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말을 할 때 발음이 매우 듣기 어려웠다.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줘도 알아들을까 말까한데, 그저 반은 웃고 반은 흘려버리고 그렇게 지냈다. 다행히 같이 묵던 Pakistan 친구는 영어가 매우 유창하여 주로 둘이 이야기하고 난 그저 짐작게 옆에 앉아 간간히 미소만 띄워주었다. Pakistan 친구는 4살때부터 영국사람에게 영어를 배웠더니 그 유창하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될 것이다. 영어실력은 한달반이 지난 지금도 그리 많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다.(하지만 공부하는데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괴로웠던 4박5일의 민박을 마치고 드디어 9월 6일 기숙사가 있는 Harlow로 떠나게 되었다.

2. 물설고 낫설은 Harlow에서.....

이곳 Harlow와 London의 관계는 서울과 안산쯤의 관계다. 거리상으로나 규모로나 London 인구가 급증하면서 만들어진 작은 도시로 신흥 산업도시이기도 하면서, London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 내가 있는 곳과 반대쪽에는 old Harlow라고 제법 오래된 교회와 건물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은 대부분 건물들이 오래되지 않았다. 난 YWCA Hostel에 살고 있다. 7층짜리 건물인데 한층에 방이 14개씩 있고(이중 2개는 2인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인용), 2개의 커다란 부엌겸 식당과 2개의 공동화장실 겸 샤워장이 있다. 밥은 각자가 부엌에서 해먹게 되어있다. 난 Hong Kong 친구 두명과 함께 매주 식비를 건어 공동으로 해먹고 있다. 방은 Hong Kong 친구랑 둘이 같이 쓰는데 작은 침대 2개, 책상 2개, 서랍장 2개와 불박이장과 간이세면대가 전부인 아주 단촐한 방이다.

이곳 기숙사에는 각국에서 온(주로 유럽이지만)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더러는 아시아인들에게 친절하기도 하지만 더러는 내놓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내 앞방과 옆방에 사는 영국애들은(대부분 20대 초반의 애들이다) 여지껏 우리에게 "Hi"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외면해버리기 일쑤이고, 나 역시 그들을 무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분이 영 좋지만은 않다.

가끔 인종적 편견을 가진 백인들을 볼 때가 있다.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한데 여기는 한국사람은 눈 씻고 찾아도 없지만 Hong Kong에서 이민온 사람들은 매우 많다. 어떤 날은 국민학교 옆을 지나는데 쪼끄만 녀석들 한무리가 학교 담안에서 내게 손가락질 하며 "Chinese, Chinese"하며 놀려댄 적이 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말



↑ Margaret(Papua New Guinea)의 생일날, 모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Hong Kong, Hong Kong, Papua New Guinea, Tonga, Indonesia, 아랫줄 왼쪽부터 Lebanon, 필자, Philippine, Hong Kong (room mate) 친구들. 사진 찍느라 Pakistan만 빠졌다.

을 덧붙였는데 짐작에 아주 비웃고 놀려대는 투가 역력한 느낌이었다. 그냥 지나가도 되련만 갑자기 열이 받아 회 돌아서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영어가 짧으니 다른 말이 나올 턱이 있나, 그저 무서운 눈초리와 목소리로 "I'm not Chinese."만 외쳐대었다. 그래도 효력은 있어 모두들 도망가버렸는데 그런 애들이 자라면 바로 내 앞방, 옆방 애들처럼 되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영국사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아주 친절하고 편견없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클래스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10명이다. 모두 함께 나서는 걸어다니는 인종전 시장을 방불케하는데 Pakistan(이름은 Razia), Lebanon(Rabha), Indonesia(Mitha), Papua New Guinea(Margaret), Philippine(Christine), Tonga(Sia), Hong Kong(Vera, Doreen, Dorothy-이중 2명은 장학생이 아니고 자신이 학비를 내고 다니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Korea다.

각자가 모두 개성이 넘치고 나름대로 재미있는 친구들이다. 이들 중 Vera와 난 한방을 쓰고 있다. 그리고 Indonesia에서 온 Mitha와 제일 친하다.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의 어린이를 위한 한 민간단체에서 카운셀러로 일했는데 우리 지택연 이야기를 듣고 많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가까워졌다. 민간단체가 갖는 어려움, 함께 아이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감대가 서로 통했던 것 같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우리가 했던 피켓팅이나 거리에서의 평화행진 등을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놀라움 반, 부러움 반의 표정을 짓는다. 한국의 시위방법과 횡수에 대해(학생운동, 시민운동 포함하여) 이야기해주면 반은 기절할 것 같은데 언젠가 기회를 봐서 꼭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Hertford Regional College이다.

학교수업은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이다. 영어가 4시간,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 물론 실력을 기준으로 - 물론 나는 2진인데 1진에 4명, 2진에 6명이다). Social Studies가 2시간, Health가 6시간(나의 health가 아니라 아동건강, 모자건강 등에 대해 배운다. 정말 이 시간은 힘든데 상상해보시라. 각종 예방주사이름, 각종 부인병 등에 대해 영어로 강의를 듣자면 머리가 회 돌아버릴 지경이다). 아동발달, 아동교육이 5시간, 교수법이 한시간, Workshop이라고 실기시간이 3시간, (이 학교에는 우리로 치면 보육교사 훈련원 비슷한게 1년 코스로 있다. Workshop시간에는 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다. 주로 만들기, 밀가루반죽놀이, 자연관찰법 등 실기 위주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Cookerg시간이 2시간, (Cookerg tutor는 나의 special friend이기도 한데 시설 좋은 학교 조리실에서 반은 놀고 반은 먹는 그런 시간이다. 여지껏 피자, 스파게티, 영국식 각종 쿠키와 파이 등을 만들었는데 내게 영국식 버터플라이케익이 무슨 필요가 있나는 잘 모르겠지만 맛은 엄청나게 괜찮았다). 컴퓨터가 한시간(이 시간 또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기계랑 놀면 되므로 별로 영어가 필요치 않다)이다.

그리고 수요일은 현장방문의 날로 두명씩 한조를 이루어 각 시설을 방문한다. (매번 방문마다 영어로 보고서를 대여섯장씩 써야 하는데 여간 힘들게 아니다. 한국말로 쓰래도 힘든 판에 영어로 써야 한다니).

우리의 담임 tutor는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Mrs. Lynsi인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가끔씩 매우 바쁜 관계로 수업을 구멍내므로 모두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아침이면 기숙사로 미니버스가 우리를 데리러 오고 버스를 타고 15분쯤 가면 학교다. 5시에 학교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오는 그런 단조로운 생활의 연속이다. 저녁때는 주로 저녁 해먹고(정말 먹는 이야기에 이르면 할 이야기 무척 많은데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겠음. 다만 한가지, 칼칼한 된장찌개에 신 김장김치 먹는게 지금 내 소원인 것만 밝혀둬. 벌써 군침이 돌고 있다) 잠시 애들과 놀다 열심히 공부한다. 가끔 TV 보러 1층에 있는 TV룸에 가기도 하지만 주로는 방에서 암전하, 열심히 영어공부를 한다(다 늙어 공부하는게 쉬운 일은 정말 아니다). 룸메이트는 저녁마다 영어실력 늘인다고 식당이고 TV룸이고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러 잘도 다니는데 난 왜 영 그게 안되는지 모르겠다. 모두들 의견이 그렇게 해야 말이 빨리 는다고 하는데 난 그저 책만 붙들고 앉아 있는 편이다. 영국에 오기 전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카셋트를 크게 틀어놓고(물론 영어회화테이프)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부업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친구가 놀러와 친구방에서 돌이 놀고 있다가 친구 친구놈이 머리를 삐죽 내밀고는 "야! 니네 엄마 미국사람이냐?"하니깐 한참 생각을 하던 우리 아들 하는 말 "아나, 우리 엄마 영국사람이야." (오! 똑똑한 내 아들. 엄마가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 가는 건 확실히 안다만 엄마가 어느나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 한 때는 미국사람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영어를 잘 하던(?) 내가 왜 정작 본토에 와서는 이 모양인지. 그래도

모두들 하는 이야기가 갈 때쯤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게 된다니 그거나 믿고 기다려보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쓸 이야기는 많지만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다른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 귀엽게 생긴 자마이카 청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Hi, sweet dear"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나중에 알고보니 여기서 sweet darling, sweet dear, Honey는 안면만 있으면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었다) 등등.

아직도 집에서 가져온 친구사진은 못 꺼내보고 있다. 꺼내는 순간 울 것 같아서이다. 그래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수영장에 가기 위해 기숙사 문을 나서면 거리엔 인적이 없이 가로등만 반짝이고 이제 막 지기 시작하는 나뭇잎들만 쓸쓸히 보도를 뒹군다. "정말 내년 7월이 내게 오는 걸까?" "내년 7월이면 그리운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지난 주에 산 세수비누 석장을 다 쓰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 있을까?" "엄마가 보내준 참기름을 다 먹으면 두달 쯤 지나있을까?" 부질없는 생각을 지우려 가볍게 뛰기 시작한 다. 저쪽 언덕너머로 뿌옇게 동이 터오고 있다.



멀리 영국에서 온오 지내는 정혁은 부럽장에게 안부편지라도 지택엔 식구들이 한번씩 보내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마도 정혁은 부럽장이 보다 친밀하게 낮은 시각들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른대구요? 에이, 그게 뭐 어때요? 서택지한테 편지 써서 보내지 않아요? 지내야 쓰나? 그거, 지택엔 식구들은 공통전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소재가 있잖나.

주소를 알려드려요. 꼭 편지를 쓰시고 가끔 월급날이면 치약 하나라도 보내도 좋습다.

Hee Yun, Chung

48s, YWCA Alexandra Hostel,

Fourth Avenue, Harlow,

Essex, CM20. 1DN

tel) 01279 - 454636

좋은 그림책 소개



달님 안녕

하야시 아키코 글, 그림 / 한림출판사 / 2,500원

도시 사람들은 시골사람들보다 어두움을 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의 밤은 낮처럼 밝습니다. 그러나 낮에 본 동네, 집의 모습과 밤에 본 동네, 집의 모습은 색도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 보는 동네의 색과 느낌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달님 안녕』은 이 캄캄한 밤하늘에 나타난 달님 이야기입니다. 한장 넘기면 창가에 쏟아지는 노란빛, 무얼까? 또 한장을 넘기면 집 뒤로 살짝 내비친 조각, 또 한장을 넘기면 눈을 감고 떠오르는 둥근달의 모습이 보이고, 다음장은 지붕위로 올라간 둥근달과 은은히 비치는 달빛이 보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흰히 뜬 달과 쏟아지는 달빛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감동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이 그림책에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잠깐 구름이 나타나서 달님이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구름은 물러가고 다시 달이 환히 떠있는 모습과 달을 보고 좋아하는 엄마와 아기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 그림책에의 등장인물은 집, 달, 고양이 두마리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엄마와 아기입니다. 고양이의 모습은 마치 달이 뜨는 광경에 놀라는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 달을 보며 즐거워 하는 아이와 엄마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변하는 달의 모습과 등장인물의 모습이 나타나서 자꾸 그림책을 넘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자연현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다면 이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밤이 일찍 찾아오는 늦가을에 아이들과 달구경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혹시 알아요? 달을 모르던 아이들이 달을 이 기회에 알 수 있을지...(만 2세이상)



새벽

유리 슬레비치 글, 그림 / 강무환 옮김 / 네버랜드 / 5,000원

『새벽』. 이 그림책을 본 교사들이 처음 하는 말, “이거 그림책 맞아요?” 유리 슬레비치는 “어린이에게는 최고의 것을 건네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한편의 책을 만드는 데에도 문학과 미술에 걸친 자신의 모든 경험을 몰입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유리 슬레비치의 그림책은 『새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듯 하면서도 극적으로 움직임을 그려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나 그림이 웬지 우울하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어른들이 먼저 지레짐작하게 되는데 그 차분함 속에서 주는 매력 또한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새벽은 중국 당대 시인 유종원의 글을 소재로 그린 그림책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 문인들의 이상이었던, 속세를 떠나 자연에 운둔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세계관을 그린 것이 유종원의 시라면, 유리 슬레비치의 『새벽』은 ‘새벽’이라는 자연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대로 그려낸 그림책입니다.

조용한 새벽, 호숫가 나무아래 노인과 손자. 달빛은 바위와 나무가지를 비추고,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는 숲속. 실바람에 호수가 살며시 떨고, 물안개가 피워오른다. 노인은 손자를 깨워 아침을 먹고 낚은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리곤 한순간 산과 호수는 초목이 된다.

이 그림책은 그림책이 아니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책입니다. 그림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변화이고, 시간의 변화를 색과 작은 움직임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시를 그림을 통해 보는 것 같습니다. 살며시 웃는 할아버지의 얼굴과 호숫가 한가운데로 가는 배, 그리고 환한 아침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어른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뜻이 아니더라

도 그림을 통해 새벽을 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풍족해지는 그림책입니다. 꼭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그림책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조금 큰 아이들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딱 몇세 부터 볼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아이들의 반응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글을 보내주세요. 좋은 책을 골라내는 일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 그림책 읽는 교사모임에서 알립니다.

하나 - 소개된 그림책을 11월말까지 주문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두통 - <좋은 그림책 소개>에서 나온 책을 아이들러 함께 보고 글을 보내주세요.

요. 다소 다른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글에 쓰여있지 않은 중요한 평가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눈으로 그림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의 주인은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글을 기대합니다. 평가서를 보내 주시면 ‘그림책 읽는 교사모임(가칭)’에서 좋은 책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새였 - 지난번 이현경 선생님의 글 보셨지요? 역시 현장에서 아이들의 느낀거 비평을 담은 내용이나 훨씬 좋은 내용이었다고 그림책 모임에서 이야 기되었습니다. 이현경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책 『새벽』을 드려기 오 했습니다.

연장연구

H.A 레이의 『따릉따릉 비켜나세요』를 읽고 나서

고영미 / '그림책읽는 교사모임' 회원
진달래동산 어린이집 교사

요즘처럼 좋은 가을날씨면 가끔은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주 멋진 2,000cc 세단 자가용을 타고? 천만에! 약간 터덜터덜도 좋으니까 내 몸에 딱 맞는 자전거 한대면 난 충분하다.

자전거.

생각만 해도 낭만이 짙! 짙!

어른에게는 낭만과 어릴적 추억의 대상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다른 세계로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장난감이자 교통수단이다.

어마어마한 악속과 무수한 잔소리 뒤에 사주는 자전거에는 어쨌든 집앞 골목과 집 마당 말고 다른 곳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있는 것이기에 아이에게 더 넓은 세계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모험, 도전, 탈출의 허락과 동시에 그렇게 커다란 기계를 직접 자기 몸으로 다루어 사용할 수 있는 기쁨까지 얻을 수 있으니 5,6살 된 아이들이 너나 할 것없이 자전거(네발 혹은 두발)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사실이 너무 길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림책의 주인공인 원숭이 조지는 아주 호기심 많은 5살에서 7살 사이의 남자 아이들과 하는 것이 똑같아서,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이런 기분을 이해해 주는 것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여겨져서 첫말을 길게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노란 모자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머나먼 이국땅에 온지 3년째 되는 날. 아저씨가 선물로 주신 자전거를 타고 도시로 나온 조지는 신문배달 소년 대신 배달을 해주다가, 배달해야 할 신문으로 모두 종이배를 접어 강에 띄우고는 흘러가는 종이배를 따

라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자전거가 고장나서 고생하던 조지는 서커스단 아저씨들을 만나 서커스에 출연하기로 약속 받고 서커스단에 오지만 조지의 장난으로 타조가 나팔을 먹는 사고가 발생해서 서커스 출연 약속이 취소된다.

실의에 빠진 조지는 마침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위험해진 아기곰을 용감하게 구출해 줘서 다시 서커스에 출연하게 되고, 노란 모자 아저씨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이 그림책의 줄거리다.

이야기가 길고 글씨가 많은데도 아이들은 이 책을 좋아했다.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자전거가 선물상자에서 나올 때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라니! "나도 자전거 가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자전거가 고장나서 조지가 고생하며 우는 장면에서는 (벌써 외워버린 뒷장면의 외발타기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떠올리며) 읽어주는 교사보다 앞질러 "괜찮아요, 한발로 타면 돼요."라고 큰소리 친다. 곰을 구출하는 장면도 아주 좋아했는데 이런 극적상황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조지가 큰 일을 훌륭히 해내는 걸 보며 뿌듯해했다. 맨끝에 아저씨를 다시 만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는 아이들은 아주 행복한 미소로 내 걸을 떠난다. 아이들도 집으로 가고 싶을 것이다.

서커스를 본 적이 없어 동물원과 구별을 잘 못하긴 했지만, 어린 아이들도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주인공 이름과 서커스장면 때문에 너무나 서양적이라고 느껴서 꺼려했는데 읽어주다보니 내가 더 좋아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미있으니까.



건강하게 살시다

H.A 레이의 비만증 — 그 대책은?

김철환 / 인제대 부속 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만은 왜 병인가?

비만은 체내 존재하는 지방의 양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체지방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통 표준체중보다 20%를 초과하였을 때를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비만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필요량보다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흔한 원인이 됩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사망률도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당신의 허리띠 길이는 수명과 반비례합니다.

비만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흔하고, 집의 경제적인 것과도 무관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오히려 가난할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 비만이라고 진단하는가?

비만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구하기 쉽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자신의 표준체중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표준체중=(신장-100)×0.9 의 공식을 통해서 자신의 표준체중을 구하고, 현재체중과 표준체중의 비가 비만도입니다. 비만도가 10~20%일 경우를 과체중이라고 하고 20% 이상일 경우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비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한 기구나 장비를 이용해서 피하지방의 두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만을 조절하는 방법은?

비만의 대책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입니다. 비만증이 무절제한 식생활이나 운동량 부족, 그리고 정신적 부담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 짠 음식,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찌기 쉽습니다. 입맛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되도록이면 싱겁게 그리고 달지 않게 먹는 것이 비만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식물성 기름이 부족하면 오히려 살찌기 쉽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3. 야채, 버섯, 해초류는 많이 먹어도 피하지방으로 침착되지 않으면서 영양소가 충분한 식품입니다.
4. 피하지방으로 침착되기 쉬운 당질식품의 예로는 백설탕, 백미, 비스켓, 엿, 양과자 등이 있습니다.
5.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이 많은 당질식품으로 과일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6. 비만에는 식이요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운동도 같이 해야 합니다. 수영, 조깅, 산책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고, 아랫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의 근육을 사용하는 체조(예:윗몸일으키기)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시중에서 요란히 광고하고 있는 효소 등의 비만식품, 이상한 기구를 사용한 비만요법은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성공적인 체중조절을 위한 조언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적절한 식사습관과 운동습관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체중조절 방법입니다.

체중을 줄일 때는 한달에 1~2kg 정도씩 빼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하면 비만의 원인인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골만 빠져나가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곧 다시 체중이 늘립니다. 먹으면서 체중을 빼십시오.

금주(특히 남성), 간식(특히 여성) 금지가 효과적입니다. 세끼 식사 이외의 간식은 라면, 새 조각, 우유나 콩스 한잔 정도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사후에 가볍게 걸어다니고 20분~20분 걷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식사를 많이 하거나, 저녁 늦게 집에 와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비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

후 세끼를 다 드시고 적당히 나누어 드십시오.

집에 체중계를 비치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만을 해결하는 것은 오랫동안 체중감량을 바꾸는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구워 사먹는 비만한 사탕을 비단하지 말고 과일을 갖고 지속적으로 통곡물 주십시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비만한 아이라도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체중을 유지할 정도의 식사량 운동을 하면 차차 정상체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체중의 목표를 이상적인 체중으로 잡지 말고, 이상체중의 110%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이상체중의 120%를 달성하고, 그 다음은 이상체중의 115%로 차츰 줄여 나가십시오.

작은 기획

쉽게 배우는 사진, 비디오 고수(3)

김태일 / 「푸른영상」 연출가

이제까지는 알아두어야 할 초보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대부분 알고보면 쉬워도 자세하려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요즈음은 자동카메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리를 모른다면 자동카메라도 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자동이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동은 평균치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어떤 그림의 중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검은 것을 검게, 흰 것을 희게 보여주기 보다는 중간톤인 회색으로 보여진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나 사진을 확대해보면 자동과 수동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자동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카메라를 수동 조작할 수 있는 법을 먼저 배워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알고보면 쉽고 재미있는 것임에도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한다.

염두해야 할 것은 사진이나 비디오는 빛과 그림자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빛이 있기에 세상万물의 형체를 볼 수 있고 사물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이 없다면 세상은 어둠 뿐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때 한줄기의 작은 빛도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섬세한 빛의 모습들을 촬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카메라 렌즈로 부터 들어온 빛이 어떻게 필름에 감광되느냐(찍히느냐)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빛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대략 두가지 - 태양과 같은 자연광과 백열등과 같은 인공광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력이 강해 흰 것을 희게 보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빛에도 나름의 색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백열등과 정오의 태양빛, 그리고 노을지는 석양 빛의 색온도가 다르다. 이렇게 다른 빛을 대략 실외, 실내(daylight, tungsten) 두가지로 구별하여 카메라에서는 사용하는데 하나는 푸른빛을 띠고 하나는 붉은 빛을 띤다. 그래서 어떤 빛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외용, 실내용(daylight, tungsten) 필름 중에



(O)



(X)



(O)



(X)

얼굴이 어둡거나 역광일 때는 플래시를 사용해야 좋다.
또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거리조절이 중요하다.

서 그 빛에 맞는 필름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실외용(daylight) 필름이다.

카메라는 사람의 눈이 가진 적응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보는 것과 카메라의 렌즈가 보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카메라는 사람의 눈의 기능을 조금 가진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대로 사물을 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빛이다. 빛은 가시광선, 적외선, 전자파 등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에 보면 여러 색이 있는데 그

중에 붉은 색과 파랑색의 파장은 파랑색으로 갈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이 가장 내리쬰 때는 오후 2시경의 태양빛의 색온도는 제일 높다. 이때 색(사진에서 쓰이는 색은 붉은색, 녹색, 파랑색이다)의 분포도는 파랑색이 높다. 그래서 파랑색에 잘 반응하는 실외용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실내 백열등은 붉기 때문에 붉은색에 잘 반응하는 실내용 필름을 만든 것이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는 필름이 어떤 종류인지 파악해야 한다. 여러분중에는 사진을 찍었는데 인화해보니 전체 색깔이 붉게 나온 것도 있고 퍼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빛을 잘못 사용한 때문이다. 태양 빛 아래에서 실외용으로 촬영해야 하는데 실내용을 쓴다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실외용 필름을 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빛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가지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할 것 같아 여기서 한가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눈과 필름이 보는 렌즈의 눈은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의 눈은 어두운 곳에도 볼 수 있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적당한 빛과 렌즈와 필름이 제대로 있어야 사물을 재현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빛은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사용하며 필름 또한 두가지로 나뉜다. 그래야만 색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가게에서 파는 필름은 실외용이다. 실외용을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조명(라이트, 후레쉬)을 사용해야 제대로 나온다.

시사말록이

어른 세계의 어두운 축소판

-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

편집부

비 내리는 늦은 저녁, 우산을 양손에 들고, 귀가 하는 아이를 배웅하러 대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정겨운 모습은 이미 오래 전의 풍경이다. 공부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피해야 할 것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비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젖은 옷의 빗물을 털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혹여 누구에게 맞은 흉터는 없는지, 옷은 찢겨져 있지 않은지 눈여겨 살펴보고 만일을 대비해 비상금을 두둑히 챙겨줘야 하는 현실이니 말이다.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몰리는 초일류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기형화 된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억압하고 있다. 요사이 아이를 둔 부모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청소년 폭력은 어느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돈 많고 나보다 갖은 게 많아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대상에게만 내뿜는 상대적 빈곤자의 충동적이며 일시적인 시샘 어린 분풀이가 아니라, 어느 특정 계층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는 이 총체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 선배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못해 고등학생인 아들이 자살하자 아예 자기 사업을 그만두고 「학교폭력예방시민모임」을 만든 한 아버지의 사례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게 하는 일이었다.

학교 폭력이 공개적으로 대두되다 보니 신문의 사회면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된다. 폭행을 당한 학생이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부모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은 우선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지고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을 찾으려 한다. 그러다보니 점점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의심스러워하며 부모는 접근하지만 아이들이 좀체로 입을 열지 않기 때

문에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아이들이 처음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은 등하교 때와 주말 친구들과의 나들이에서 선배에 의해서라고 한다. 용산전자랜드나 청계천 주변, 대학로 등이 그 주요 대상지로, 뒤에서 오던 누군가가 친구처럼 손을 뻗어 어깨를 잡고서는 유유히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나 볼 것같은 이러한 장면 속에서 피해 학생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감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우리라. 한번 시작된 공포의 경험은 상습적으로 계속되고 피해를 당한 아이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게 된다. 하지만 학교 교사나 부모의 힘을 빌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소수일 뿐이다. 어느 통계를 보면 '신고'가 2%, '학교에 알린다'가 8%, '부모와 상의한다'가 30%에 불과하다. 60% 이상의 피해 학생들이 감추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설문에서는 '보복하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5%, '비밀로 하겠다'가 15%, '부모나 선생님과 상의하겠다'가 20%,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한다'가 10%,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가 7%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된 바로는 가해 학생들의 수준은 그들의 경제 형편과는 별개라고 한다. 그들은 국적 모를 상표와 광고로 치장된 주인공이 되기 위해 위험한 폭력을 선부르게 흉내내는 것이다.

희망의 미래가 되어야 할 아이들의 이런 대답을 듣는 오늘, "정말 암담해서 아무 생각도 안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폭력 청소년들에게 공개적 사과와 변상을 요구하고, 근로노동-휴지증거나 화장실 청소와 같은-의 처벌을 내리고, 선도자를 연계하고, 예방을 위해 호신술을 가르치고, 97년부터는 청소년의 약물 복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 검사시 약물 반응을 실험하고, 약물 남용 청소년 치료를 위한 재활센터를 만들고...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 과연 '학교 폭력'이라는 회피한 말이 사라질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아이들이 60%가 넘는 사회, 부정부패의 상남고리가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는 사회, 비정상적인 힘의 논리가 그릇되게 합리화되고 있는 사회, 자기의 물욕을 위해서는 폭력마저도 방치, 조장하는 어른들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어른들 폭력의 축소판이 되고 있는 아이들의 오늘에 내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글마당

탁 아 소 별 곡

[아가동산어린이집] 편

이야기 하나 - 애기씨(?)

어린이집에서 여자, 남자에 대한 이야기나누기를 하고 난 며칠 후 형구(6세 남아)가 집에서 꼬치(?)를 만지고 있었다.

엄 마 : 형구아! 너 꼬치 만지면 애기가 안생긴다.

형 구 : 아니야 엄마! 애기가 아니고 애기씨가 안나오는거야.

엄 마 : ?!

이야기 둘 - 개미

어느날 간식시간이 지난 뒤 진욱이(5세 남아)가 마당에서 개미를 발견하고 아이들을 불러모았다.

진 욱 : 애들아! 개미가 나면 먹고 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몰려와 구경을 했다(물론 선생님도). 잠시 후

진 욱 : 선생님, 개미가 나면을 떼서 집으로 들고 가고 있어요. 보세요, 진짜예요.

자세히 보니 마당에 떨어진 라면 부스러기를 개미들이 조금씩 뜯어서 옮겨가고 있었다. 선생님도 무심히 본 것을.....

아! 저 세심한 관찰력.

이야기 셋 - 연두색 피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메뚜기를 발견하고 몇명이 대문밖으로 나가더니 잠시후, 다래(5세 여아)가 뛰어와서

다 래 : 선생님, 가영이가요 있잖아요, 메뚜기 밧아 죽였어요.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근데요, 메뚜기가 연두색 피를 흘렸어요.

이야기 넷 - 어린이집에 붙여온 경호봉

요즘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짝을 짓기 어렵다. 21명의 아이들 가운데 3명만 여자아이다. 당연히 남자아이가 18명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벌어진 일로 5~6세반 아이들의 며칠에 걸친 대화를 소개한다.

간식시간

지 항(5세 남아) : 선영아! 이담에 크면 나랑 결혼할래?

선 영(5세 여아) : 싫어. 난 친이오빠랑 결혼할거야!

진 이(6세 남아) : 아나, 커서 그때 생각해볼거야.

지금은 잘 몰라!(간식을 다 먹고 나가버린다)

지 항 : 너, 선영이 너랑 안놓아!!

한참 후

선 영 : (불력을 갖고 놀던 창혁이에게 다가가더니) 창혁아 나랑 같이 놀자.

나도 시켜줘.

창 혁(5세 남아) : 안돼. 너 아까 나하고 결혼 안한다고 했잖아! (어머! 창혁이도)

그럼 나랑 결혼할거야?

선 영 : 창혁이 너는 아까 나랑 결혼하자고 안했잖아!

며칠 후

은 우(5세 남아) : 선영아! 나랑 결혼하자!!

우리들의 목소리

『어린이와 그림책』을 읽고

문유미 / 예술어린이집 교사

이 글은 '그림책 읽는 교사모임' 회원이 되고자 하는 문유미선생님이 [어린이와 그림책(샘터사)]을 읽고 느낀 점을 그림책 모임에 제출한 것입니다.

기존 회원들은 같이 읽고 만장일치로 문유미선생님을 회원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 모임만 보기에 아까워서 [우리네 아이들]에 투고합니다.

- '그림책 읽는 교사모임' -

내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내 작은 기억들. 어릴 때 오줌 싸며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과 해지도록 뛰어놀던 기억들.

그런데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들 속에 그림책에 관한 기억은 좀체로 떠오르지 않는다.

국민학교 몇학년때인가? 그때 나는 교내방송에 독후감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그 동화의 제목이나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많이도 우쭐했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렴

풋하게 교훈적인 내용의 동화였다는 것의 예는...

교훈적인 내용의 그림책이라면 기꺼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예전의 내가 부끄럽다. '아이들에게 수시로 말로 지시하고 혼내서 일상생활습관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훈적인 그림책을 통해 자연스레 배우게 하는게 우리 어린이집의 예절교육방법이 예요'라고 자랑스레 떠들던 나였다. 그림 자료를 보여준 뒤에는 꼭 한두가지 질문을 퍼부어대고 아이들이 모르면 혼을 내던 그 일면 선생님이 또한 나였다.

그림책을 보다 꾸벅꾸벅 졸던 아이들! 안보고 놀상 옆친구와 장난하는 아이들!

그래! 이제사 알 것 같다. 왜 아이들이 그토록 그림책 듣는 걸 힘들어했는지 말이다.

요즘, 아이들의 엉덩이가 그것도 두세 명의 엉덩이가 내 무릎을 타고 앉아 있노라면 숨이 차오른다. 그림책의 글자도 아이들의 어깨 틈새로 몰래 훑쳐보며 읽어 내려가야 할 정도이다. 그런데 즐겁다. 내가 즐겁다. 아이들 볼을 내 볼에 부비며 읽어주는 그 시간이 즐겁다. 아! 요즘처럼 그림책이 죄다 탐난 적이 없었다. 꼭 아이들처럼 말이다.

그림책을 옆구리에 낀 채 다니다 못해 질경질경 껌처럼 씹어먹기까지 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 그림책을 먹고 자라게 해주리라. 그래서 먼 훗날 어릴적 이야기가 가슴속에 푹푹하게 되살아올라 사람끼리 부대끼며 정스럽게 살고 이쁜거 이쁘다 느끼는데 주저함 없도록 내가 해주어야지.'라고.....

나의 아이들

박정희 / 주부

"애기엄마, 애기엄마 집에 있수?"

이층집 할머니가 날 부르시는 소리다. 퍼뜩 정신이 든다. 아, 내가 애기엄마? 집안 살림에 몰혀 길다란 치마에 머리 등등 틀어올린,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 정말 엉악없는 아줌마로군.

나 하나 쳐다보고(?) 사는 우리집 두 남자를 위해 나의 하루는 아침 챙기기부터 설겅이 빨래 청소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제 갓 백일된 우리 아가 뒤치닥거리에 하루 해는 짧기만 하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나는, 바램대로 얼마전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유치원교사로 일했었다. 교사라는 직업. 가르친다는 일. 그렇지만 아이들과의 생활은 오히려 나를 가르치곤 했었다. 또한 아이들은 한없이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함을 온통 지녔기 때문이다.

몇해전 있었던 일이다. 당시 TV광고 중에 신용카드광고가 하나 있었다. 내용인즉 중년의 신사가 갈기가 멎진 사자를 데리고 나와 카드를 내보이며 "이제 덕에서도 사자 한마리 키우시죠?"하는 것이었다. 그때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동물'에 관해 배우고 있었는데 그날은 야생동물과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는 친구 있어요?"

저요! 저요! 단풍잎같은 손들을 쳐들며 강아지요, 고양이요, 토끼요, 저마다 한마디씩 외쳐대고 있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 가축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이에요. 호랑이나 사자가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선생님! 그런데요, 왜요, 텔레비에서는요, 사자 한마리 키우래요?"

"....."

그때의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모면했는지.....

그냥 웃어넘길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때 그 일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직선적이고 단순한 아이들. 그 순수한 눈들이 보는 어른들의 세계는 얼마나 이상스러운 요지경속일까. 꾸밈없이 솔직한 나의 아이들 앞에 난 선생님이라기 보다는 부끄러운 어른인적이 많지 않았던가?

요즘 우리 아가는 제법 방글방글 웃기까지 한다. 그저 의사표시로는 울 줄밖에 모르던 아이가 어느새 기분 좋은 얼굴표정을 배웠나 보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아이를 보며, 집안일로 무력해진 나 자신을 추스리며 다짐하곤 한다. 내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더 큰 사랑으로, 올바른 세상, 비뚤어지지 않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아가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다고.

연장소식

전라도 부안을 다녀와서

이예용 / '땅밧기 모임' 회원

10월 여행은 기행모임 '땅밧기'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한 여행이었다. 전라도로 가는 두번째 여행이다.

10월 2일 서울역에서 막차를 타고 부안 번산반도, 채석강, 내소사를 가기 위해 김제역으로 출발했다. 내가 좋아하는 전라도로 간다고 생각하니 잠이 잘 안온다. 김제역에 도착한 것은 새벽 세시쯤이었다. 우리는 용감하게도 김제역에서 밤을 지새기로 했다. 그날 밤 선화 언니, 연순이, 숙희 언니, 나 이렇게 넷이서 김제역 부근을 빙 돌았다. 잠을 안자서 그런지 나중에는 걸으면서 즐겼다.

드디어 우리가 움직여야 될 시간이 되었다. 김제역에서 출발하는 새벽 6시 20분차를 타고 부안으로 갔다. 부안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아침을 먹고 부안읍내에 있다는 한쌍의 돌솥대와 돌장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안의 동문안 당산과 서문안 당산을 보러갔다. 솥대는 성역의 상징이었고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이정표와 경계표시 몫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 17세기 후반에 세워졌다는 돌솥대와 돌장승은 많이 닳아 있어서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다행히도 돌솥대 한개는 온전히 그 모습이 남아서 꼭대기에 오리가 앉아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고 한개는 중간이 잘려나갔다. 장승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재미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한 장승도 많이 닳아서 얼굴이 밋밋해졌지만 약간 심술궂은 그 표정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부안거리는 조용했다. 우리는 부안 버스정류장으로 다시 와서 격포로 가는 버스를 타고 격포 해수욕장에 있는 채석강으로 갔다. 드디어 격포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준비하게 늘어선 음식점을 지나자 곧 해수욕장이 나타났다. 여름이 지난 뒤라서 해수욕장은 조용하고 호젓했다. 해변으로 내려가 우선 바닷물을 들여다 보니 바닷물이 깨끗했다. 가까이에서 조그만 섬이 보이고 모래사장이 끝나는 곳에 채석강이 있었다.

이곳은 먼 옛날(중생대 백악기에서 신생대 초)에는 생물이 살기 힘든 호수 속이었다

고 한다. 채석강은 강(江)이 아니다. 나는 강이라는 말 때문에 강인줄 알고 있었는데 여행준비를 하면서 강이라는 말은 중국의 채석강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여기 저기 흩어져 퇴적암으로 된 절벽을 바라보고 만져보고 신기해했다. 얇은 퇴적암이 끊어지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선을 따라 죽 이어져 층층이 쌓인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였다. 우리중 몇몇은 맨발로 바닥을 걸었다. 바닥은 밀가루로 만든 것처럼 부드러웠고 구멍이 패인 것이 커다란 신발을 신고 찍어놓은 것 같았다. 오랫동안 보는 바닷가는 여전히 할 말을 잃게 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사진을 찍고 내소사에 가기 위해 외포리로 가는 버스를 탔다. 잠을 안자서 그런지 의자에 앉아있자니 잠이 오려고 해서 눈을 일부러 부릅뜨고 창밖을 훑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래도 잠은 쏟아진다. 졸며 깨며 본 창 밖에 큰 염전이 보였다. 이젠 바다를 따라 난 길을 달리고 있다. 띄엄띄엄 어촌이 들어서 있다. 집들이 보이고 그 집들 사이로 길이 보이고 길이 끝나는 마을 끝 바닷가에는 배들이..... 보인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롭게 보이는 속에는 사람들의 힘겨운 삶이 있는 것을 잠시 생각해보았다. 전라도는 땅만 붉은게 아니라 감나무도 많았다. 내 고향 감보다는 작고 앙증맞게 생긴 감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서 눈길을 끌고 있었다. 내소사로 들어서는 길은 감나무들이 더 많았다.

드디어 내소사에 도착했다. 절 근처만 와도 마음이 저절로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내소사는 키가 훌쩍 큰 쪽쪽 뽀은 전나무들이 양쪽으로 나 있는 길을 들어서야 절이 나왔다. 일요일인데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그래도 호젓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대웅전 안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서 스님 말씀들을 듣고 있었다. 절 분위기는 아늑했다. 절 뒤에 있는 능가산은 그리 높지 않아 절과 잘 어울렸다. 절 안마당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절의 역사만큼이나 나이들이 먹어보였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가지가 구부러진 소나무가 있었는데 더 구부러지지 않게 나무를 받혀 놓았다. 엄마를 따라온 일곱살 된 윤호는 절이 무섭다고 한다. 절에서 내려와 점심으로 라면과 가게에서 직접 만든 두부를 먹었다. 묵은 김장 김치맛이 저절로 군침을 들게 한다. 우리는 상점에서 염주와 반지를 샀다. 선화 언니, 숙희 언니는 어느새 발에 심어진 메밀밭에 가서 하얗게 핀 메밀꽃 속에서 사진을 찍었다.

내소사를 둘러보고도 시간이 많아 남아서 우리는 반계마을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가면 조선시대 유학자 반계 유형원 선생이 만년에 칩거하면서 글쓰고 틈틈이 아이들 글 가르치던 서당이 있다고 했다. 반계마을에 들어서는 길에 길가에는 대추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익은 대추를 골라 따먹으려 정신이 없었다. 머리에 보파리를 이고 지나가 시던 동네 아줌마가 대추를 안 따먹으면 대추나무가 그만큼 늙으니까 많이는 말고 한두개만 따먹으라고 하시는데도 욕심이 생겨 익은 대추가 보이는데로 따먹었다. 그렇게 따먹고도 남은 것은 주머니에 마구 넣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데 이번에는 감이 유혹을 한다. 차마 가지에 달린 감은 못따고 연시가 되어 땅에 떨어진 감을 주워서 열심히

먹었다. 너무 맛있다. 미경이는 기어코 내려오는 길에 감나무 위에 올라간 동네 꼬마에게 부탁을 해서 몇가지를 얻었다.

서당이 있는 곳이 산 중턱에 있어서 올라올 때는 힘들었는데 서당에 올라와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올라오길 잘했다면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밑에 펼쳐진 동네 어귀를 바라다보며 땀마루에 앉아 쉬었다. 서당은 방이 두칸이고 마루가 방을 따라 놓여져 있고 마루 한쪽은 좀 높여서 먼 곳까지 보이게 만들었다. 낮은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 잎사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윤호는 엄마가 잡아준 사마귀를 만지면서 놀았다. 윤호가 앉아 있는 마루쪽마당 한 귀퉁이에는 유형원 선생이 파서 만들었다는 우물이 있었다. 흙으로 메워져 썩은 물이 고인 그 우물을 보면서 이른 새벽 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있는 유형원 선생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보았다. 이곳을 내려가기가 아쉬웠다.

잠을 안 자서 조금 힘들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한 여행이라서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다. 아쉬운 것은 부안 변산을 못 가본 것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다.

앙기있는 자리

재주 겨루기

박덕인 원작

“히, 이거 참 딱한데.”

하고 소 아저씨는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소 아저씨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르는 듯, 이런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 근방 어디에 사철 열리는 신기한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아주 향기롭지. 너희들 중 그 복숭아를 먼저 찾아서 따오는 자가 제일 재주있는 것으로 하자.”

그러자 세 친구는 손뼉을 치며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복숭아 따는 일에서는 나무 오르기 선수인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등은 자기에게 매 놓은 것이라고 못내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계사니¹⁾도, 강아지도 자기 재간을 믿으면서 그 꼬맹이한테 지겠는가고 자신 만만해했습니다.

세 친구는 달리기 경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줄로 나란히 섰습니다. 종주먹을 권²⁾ 이들은 누구나 다 만만치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윽고 소 아저씨가 손에 들었던 돌맹이를 커다란 바윗돌 위에 딱, 내리치며 출발 신호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는 한꺼번에 땅을 차며 앞으로 내달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뛰어가던 고양이, 계사니, 강아지는 얼마 못 가서 약속이나 한 듯이 주춤 서 버렸습니다. 글썽 복숭아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뛰어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셋은 우선 복숭아나무부터 찾으려고 제각기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눈치 빠른 고양이는 벌써 자기 앞에 서 있는 제일 높은 나무 위로 빠르게 올라가 두

- 1) 거위
- 2) 주먹을 꼭 권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대고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느 나무들과 무성하게 우거져서 바람에 우수수 설레일 뿐 찾으려는 복숭아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사니도 큼직한 바윗돌 위로 날아올라가 길게 뻗은 목을 휘휘 내저으며 복숭아나무를 찾았습니다. 계사니한테도 복숭아나무는 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만은 그 자리에 침착하게 서서 연신 코를 벌름거리며 여기저기서 풍겨오는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향기로운 복숭아 냄새가 그 어디에선가 분명 풍겨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던 강아지가 별안간 복숭아나무 있는 곳을 알아 낸 듯 앞으로 곧추 달려갔습니다.

‘아무렴, 내 재주를 당할 수가 있을라구. 내가 맨먼저 복숭아를 따다 바쳐야지.’

강아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참 달리던 강아지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습니다. 바로 앞에 꽤 널따란 강이 나타나서 강아지의 앞길을 딱 막아선 것입니다.

저쪽 강 건너편에, 빨간 복숭아들이 탐스럽게 주렁진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뻗어 건너다보였습니다. 그 복숭아나무는 어서 오라 손짓하듯 길게 뻗은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입니다.

이것을 본 강아지는 강이 넓고 물살이 세어 좀 자신이 없었지만 이길 생각으로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재주로는 어렵도 없었습니다. 물살은 강아지를 사정없이 휩쓸어 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강아지는 겁이 나서 죽을 힘을 다해 겨우 되돌아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안타까워 찡찡거리며 강기슭만 오르내리며 뱅뱅 돌아갔습니다. 강아지는 문득 계사니의 도움을 받으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사니의 재주를 빌린다는 것이 마음 내키지는 않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곧, 복숭아나무 있는 데를 찾아 헤메는 계사니를 데려왔습니다.

계사니는 강물을 보자 좋은 놀이터라도 만난 듯 날개를 퍼덕거리며 기뻐했습니다.

‘아무렴, 복숭아 있는 곳을 알거나 해서 뭘 해. 내 재주가 없어야 따올 수 없는걸.’

계사니는 강물 속에 침병 뛰어들어 한바탕 시원스럽게 미역을 감고는 강아지에게 등을 돌려 대며 말했습니다.

“자, 내 잔등에 올라타라. 이까짓 강물쯤은 나한테 아무 것도 아니야.”

강아지는 계사니의 널찍한 잔등에 올라탔습니다. 강아지는 떨어질까봐 계사니의 긴

3) 다른
4) 곧장

목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계사니는 씩씩씩 강을 헤어 건넌습니다⁵⁾.

강아지와 계사니는 신기한 복숭아나무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키 높은 복숭아나무 가지들에는 향기로운 복숭아들이 탐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와 계사니의 재간으로는 도저히 복숭아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몇번이나 올리뛰어⁶⁾ 보았으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사니도 기껏 나뭇잎을 펼치고 팔막한 다리에 발돋움까지 해 가며 손을 뻗었으나 어렵도 없었습니다.

강아지와 계사니는 그만 땀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친구는 고양이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사니가 다시 강을 건너가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아무렴, 너희들 재간으로야 저걸 딸 수 없구말구., 뭘니뭘내 해도 복숭아를 따지 못하면야 소용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고양이는 으스스대면서 날파람있게⁷⁾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제일 잘 익은 복숭아를 한 알 골라 따 가지고 내려오려던 고양이는 문득, 강아지나 계사니가 아니었다면 이 복숭아를 결코 딸 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고쳐 생각하고, 자기를 올려 다보고 있는 강아지에게 복숭아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먹음직한 복숭아 한 알을 또 따서 계사니한테 내려보냈습니다. 맨 나중에 고양이는 자기 몫으로 복숭아 한 알을 똑 다시 입에 물고 복숭아나무 줄기를 타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이리하여 고양이, 계사니, 강아지는 제각기 복숭아 한 알씩 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 소 아저씨한테로 갔습니다.

돌아갈 때는 세 친구가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땀도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세 친구는 어깨 나란히 발걸음을 맞추어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벌써 세 친구가 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보고 있던 소 아저씨가 마중나왔습니다.

세 친구는 일시에 소 아저씨 앞으로 뛰어가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세 알의 복숭아를 쑥 내밀었습니다.

세 알의 복숭아를 동시에 받아든 소 아저씨는 병글병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허, 이번 경기에서도 모두가 일등을 한 셈이구나. 그러니 이번에도 너희들한테 누가 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소 아저씨, 우리들은 다신 재가 제일 재주 있다고 우쭐대지 않겠어요.”

고양이가 두 동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5) 헤엄쳐 건넌습니다.

6) 높이 뛰어

7) 재빠르게

“그건 또 왜?”

소 아저씨의 눈은 능청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길잡이를 해 주었기에 망정이지, 우린 복숭아나무를 찾아내지두 못했을 거예요.”

“계사니가 아니었다면 우린 강을 건너가지두 못했을 거고, 고양이가 아니었으면 높은 나무에 올라가 복숭아를 따지 못했을 거예요.”

강아지가 생각 깊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사니도 그 긴 목을 꼬덕꼬덕하며 고양이와 강아지의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기특한걸. 암, 제가끔 제 재간만 제일이라고 하면 큰 일을 못 하지. 그 어떤 재간도 서로 힘을 합칠 때 더 빛을 내고 은을⁸⁾ 내게 되는 거란다.”

“소 아저씨, 이젠 알겠어요.”

세 친구는 자기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소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더는 자기만이 잘났다고 욕심각신하지 말고, 서로 지혜와 재주를 합쳐 자기 마을을 더 잘 꾸리자고 굳게굳게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항기있는 자리〉는 기존에 나와있는 글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글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혼자 가슴에 담아두기엔 아까운 글을 알고 계시면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로 연락을 주세요. 추천하신 글을 여러 회원들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바랍니다.

소식과 소식

지탁연 제2차 일본 보육연수 다녀와

본회에서는 한·일보육교사연수협의회(대표:김덕환)의 초청으로 일본연수를 다녀왔다. 1992년부터 시작되었던 한·일보육교사연수는 올해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14박 15일이라는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신현희 사무국장과 각 지역의 보육교사 5명으로 총 6명이 오오사카를 다녀왔다.

연수일정은 오오사카내 5개 민간보육시설과 2개 공립보육시설에서 교육연수, 1박2일간의 가을캠프, 남해북지전문학교와 복지사무소 견학, 바자회 등을 연수하고 끝으로 한·일보육교사교류회를 통해 한·일보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상호교류를 가졌다.

이번 지탁연의 일본연수에 이어 내년에는 일본의 보육교사들이 본회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연수를 갖게 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연수에 참가했던 교사들은 연수와 일본 보육현황에 대한 평가, 논의를 통해 일본연수 보고자료집을 조만간에 제작할 예정이다.

만5세아 조기취학 재검토하기로

민자당에서는 교육법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여론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민자당은 11일 만5세 아동의 국민학교 취학을 허용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 지난 10월 18일 만5세아 생년월일순 조기입학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으나, 교육·아동·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만5세아 조기교육 입학허용 반대연대모임’에서는 이에 19일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를 하는 등 조기입학건에 대한 치열한 대응이 예고되었다.

교육단체연석회의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 간담회’ 가져

1995년 10월 25일 오후 4시 30부터 7시까지 서울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간담회는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서울지역교육단체연석회의의 주체로 준비한 간담회로 시의원 12인을 포함 40여명이 참가하였다. 교육단체연석회의는 본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유아교육을 위한 서울교사모임, 서울지역사범대학 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교육대학 총학생회,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등의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차원의 교육문제를 제기하고 공동대응하고자 연대모임을

하게 되었다. 이번 서울시 문화교육위 의
원간담회는 시의회에 현 교육단체의 현황
소개과 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점사항
을 알리고,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단체간의
상호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루어
졌다.

10월 25일은 각 단체에 대한 소개와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만5세아 조기입학
문제, 학교급식 조례제정과 학교운영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개혁
선언교사 징계문제에 관한 전향적 해결
등을 건의했다. 만5세아 조기입학건은 교
육부관할로 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
분이 아니라는 답변과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키로 하였다. 이번
서울시 간담회는 시의회가 교육단체의 의
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에서 발전
적인 모습이었다. 보육사업은 서울시 보건
사회위원회 관할로 당일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으나, 이후 유아
교육기관과의 조절과 교육의 질에 대한
의견들이 마련된다면 이후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시정감사 진행

서울시에서는 시정감사가 있었다. 이번
시정감사에서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보육
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다루어졌는데 서울
시에서는 올 97년까지 1천141곳의 보육시
설을 확충하여 보육률을 100%로 올리겠다
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종
교시설의 보육시설 설치유도를 위한 설치
비 지원을 이야기 하였다. 시설자금 신청

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직원나 성
직자들이 행정관청의 간섭을 꺼려하는 경
향이 있고,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때 야기될
문책과 시설운영비 지원부족 등으로 파악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종교시설에
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원등을 어린이집으
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참조 : 서울시청뉴스 95.10.26)

전국민보련, 세주위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세계화추진위원
회의 여성 10대 과제안에 대해 10월 27일
전국민보련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 보육사업과 관
련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에 대한 두가지 안으로 종교단
체 활용과 공동육아협동조합 지원을 제안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민보련측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
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실망스럽다
며 자체의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요약하자
면 종교단체 활용안은 이미 보건복지부에
서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신청이 적
다는 사실을 빌어 이에 대한 세부안이 나
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동육
아협동조합에 대한 시설비등 지원에 대하
여는 고유명사화된 용어라는 지적과 함께

모든 민간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200여명의 공동육아협동조합에 그 지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번 전국민보련의 문제제기를 통해
세주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
한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안이 다시 세워
져야 할 것이다.

.....

<사람들>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으
로 맹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정은 씨
가 드디어!!! 결혼을 한답니다.

이번 12월 2일(토) 오후 2시에 중국동
성당(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면사포를 쓰
실 예정이라는데 모두들 축하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
네요. 얼마전까지 해송아기둥지에서 아이
들과 땀흘리며 생활하시고 또 [바깥으로
나가놀자]소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시는 김
량희 씨가 11월 18일(토) 오후2시 남현교
회(종합운동장역 하차)에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으신답니다.

두분, 행복하세요!!!

<연합회 10월 일지>

- 10 / 16 슬라이드 제작팀 모임
- 17 지방 책임교사분과장회의
- 18 서경지역 책임교사분과장회의
[탁아소별곡]출판팀 모임
- 19 지역대표자회의
여연 정사위
- 21-25 최현숙 회장 일본 오오사카
이쿠노민족문화재 참관
- 21 전직교사 모임
- 22 영아건강교사 교육(1)
- 24 일본연수단 출국(14박 15일)
- 25 교육단체연석회의 - 시의원
간담회
- 26 그림책 소모임
- 27-28 여연 대표자회의
- 29 서경지역 자활가대표자회의
영아건강교사 교육(2)
- 11 / 2 지역대표자회의
슬라이드 제작팀 준비모임
- 3 편집회의
[탁아소별곡] 출판팀 모임
- 5 영아건강교사 교육(3)
- 6 여성평화의 집 실무자회의
- 7 일본 연수단 입국
- 9 - 11 여연 국제위워크샷 참가
(최현숙 회장)
- 서울시 보육위원회
- 10주년 행사준비모임 - 답사
- 12 영아건강교사 교육(4)
- 13 여연 경제자립워크샷 참가
(최선희 재정국장)
- 15 서경지역 평교사분과장 회의
교육단체연석회의

보육계 동향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주년 축하잔치

지탁연에서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자축하며 지탁연과 함께 해왔던 전현직 교사들을 비롯하여 관련단체분들을 모시고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 : 1995. 11. 26(일) 오후 2:00-6:00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강당동 대강당
(3호선 불광역 하차, 구기터널 방면)
주최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내용 : 1부 창립 10주년 기념식
창립 10주년 기념사(오후 2:00-3:30)
지탁연 10년을 기리는 덕담
지탁연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슬라이드 상영)
출판물 소개
감사패 증정
지탁연 발전기금 전달식

2부 축하마당(오후 3:30-6:00)
지탁연 식구들의 축하공연
다과 및 친교의 시간

• 당일 참가자에게는 지탁연 10년사 자료집을 증정한다.

제1회 서울시 민보련 교육강좌

일시 : 1995. 11. 23(목) 오후 2:30-5:30
장소 : 영등포구청내 종합상황실(지하)
내용 :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 조형프로그램
강사 : 이인실(원아동미술연구소,
덕성여대 강사)
주최 : 서울시 민보련 교육연구부
준비물 : 도화지6장, 종이컵5개, 색종이 한질,
아크릴 물감, 비닐 16절 크기 4장, 꽃
꽃이 철사 10가닥, 크레파스, 가위, 풀,
참가비 : 1인 5,000원
문의 : 서울시 민보련(02-796-1096)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02-670-3490)

민간보육 질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 활용에 관하여 -

일시 : 1995. 11. 21(화) 오후 2:00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주최 :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02-793-0115)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02-796-8364)

"방과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 방과후 방치아동 실태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995. 11. 21(화) 오후 1시
장소 : 수원시 평동 새마을금고 본점 강당
주최 : 수원여성회(0331-38-1564)
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자립금 마련을 위한 하나들셋 유아원 하루
술집**

일시 : 1995. 11. 26(일)
오전 11시 - 오후 10시
장소 : 대학로 민주장장(02-742-5814)
문의 : 하나들셋 유아원(02-984-0880)

**공개토론회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사회적 인식"**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자체조사 결과보고와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 : 1995년 11월 24일(금) 오후 2:00-5:00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3층
(356-0070)

발제내용 :

- 여성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인식
- 여성정치인에 대한 정당 및 공직사회의 태도
-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언론계 및 사회일반의 인식

주최 :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02-423-5355)

**가정폭력방지법 입법기금마련을 위한
재즈콘서트 [백성연&서울재즈크루+ONE]**

일시 : 1995. 11. 26(일) 오후 5시
장소 : 호암아트홀
주최 : (사)한국여성의 전화
주관 : 한국재즈모임(KJC)

후원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입장료 : 50,000원(S석) 30,000원(A석)
20,000원(B석)

"입장수입은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제1회 젊은 남녀를 위한 성교육

한국여성사회교육원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매주 두차례씩 '젊은 남녀를 위한 성교육'의 시간을 갖는다.

일시 : 1995. 11. 13-28
매주 월, 화 오후 7-9시(총 6강)
장소 : 여성평화의 집 교육장
참가비 : 1인 3만원

남녀 한 쌍이 참가할 경우 2인 4만원
문의전화:한국여성사회교육원(02-266-0467)

<강 의 프 로 그 램>

일시	강의주제	강사
11/13(월) 오후 7-9시	인간의 생애란 어떤 것인가?	지은희 본 원 원장
11/14(화) 오후 7-9시	남녀가 가진 사랑의 환상	김희은 본 원 부원장
11/20(월) 오후 7-9시	남자의 생, 바르게 알기	이근덕 신경정신과 전문의
11/21(화) 오후 7-9시	임신, 출산, 피 임, 낙태	구성애 성교육전문가
11/27(월) 오후 7-9시	여자의 생, 제대로 알기	이근덕 신경정신과 전문의
11/28(화) 오후 7-9시	토론마당 : 조화로운 생, 생 문화화를 위하여	윤양현 여성학자

편집부에서

• 지탁연 10주년 행사에서 봅시다.

소식지가 왜 이리 안나올까 하고 궁금하셨죠? 10주년 행사준비와 겹치다 보니 컴퓨터 쟁탈전이 저희 지탁연 사무실에서 비밀비재해져서요, 어찌됐어요? 원고를 들고 집으로 사무실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도 결국은 또...

매번 이렇게 지각생이 되다보니 이젠 여러분께 면목도 안 서네요.

지탁연 10주년 행사에 참석하시면 죄송한 마음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꼭 오실 거지요?

• 기대해주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

95년도 또 우리 길을 떠나려나 봅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져서 벌써 오리털 파카를 꺼내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다음 호는 12월호라서 송년특집호로 나갈 예정이에요. 뭔가 좀 두둑해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저희들 맘처럼 잘 들어올지가 걱정이네요. 회원 여러분들, 꿈 잘 꾸시고 넉넉한 [우리네 아이들] 기대하세요.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 이영희, 노충 셋벌어린이집, 김이남(재구독)님

의 [우리네 아이들] 구독료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10년의 자리.

그 곳에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 혜민

• 나를 다시 일하게 해준 지탁연에 감사드립니다.

편집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탁연에 미려하나마 다시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 정애

• 집안에서 생활만 하던 내가 다시 보육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새롭다.

- 애란

• 아, 언제쯤 휘파람을 불며 여유있게 편집을 마칠 수 있을까.

- 미혜

무척이나 엄청난 사건에 모두들 할 말을 잃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정을 때문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행복이란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작은 만족과 기쁨을 가꾸며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저/역/사/외/탁/여/△/연/업/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목록이: 주혜민, 변미양, 강애란, 박정애, 황미혜

펴낸날: 1995년 11월 18일

판매가 : 3,000원